

다양성과 깊이, 전통과 응용... “을 한해 주목”

새해 불교예술계이끌 4인방

문학의 시대, 그동안 꾸준히 저변을 넓혀 온 불교문화계도 ‘다양성’과 ‘깊이’를 화두로 새해를 맞았다. 불교문화계의 다양성이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응용과 발전에 줄을 대고 있다면 깊이는 작가들의 내적인 성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극 등 일부 장르의 침체를 극복할 대안 마련과 음악 문학 미술 분야의 활성화에 기를 올리는 일이 보다 활기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 문학 무용 미술 음악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불자들을 만났다.



문숙시인



손관중 교수



구진경 화가



이진구 작곡가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이죠”

문학- 문숙시인 2000년 중단 후 묵묵히 시작 활동에 전념해온 문숙시인(45)은 지난해 서울시 문화재단의 신진작가 지원 사업 대상 작가로 선정돼 올해 첫 시집을 발간한다.

“문학은 저에게 일종의 신앙이자 일상의 탈출구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될 첫 시집에서는 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지금의 삶이 맞물려있고 그 안에는 내 어머니의 삶까지도 투영돼 있습니다.”

첫 시집의 테마는 ‘버려져 있는 것들’ ‘애처로움’ ‘늪’ 등 단 5년 만에 첫 시집을 내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문 시인은 “시도 못하듯더니 늪이라”며 웃음 지었다.

문 시인이 처음 문학도의 길을 가고자 배웠던 것은 산문이었다. 95년 부산 유명근 시인 밑에서 산문을 사사했다. 스승은 문 시인에게 시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다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던 스승의 칭찬과 격려는 제가 시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자 ‘신바람’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공과 과정에서 공부에 매진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회에서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범불교활동을 통해 점점 불교에 심취했다. 대한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정교회 법륜 스님 밑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한 때 스님이 되고 싶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어요. 지금도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입니다.” 이런 불교와의 인연은 문 시인의 시작(詩作)에 큰 밑바탕이 됐다.

지난해 <불교문예> 편집위원을 맡은 것도 불자이기에 불교문학을 이어가며 포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듭 종단의 불교문화 지원을 부탁한 문숙시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든 진솔한 사립이야기를 시로 쓰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글·사진=강지연 기자

등단 5년 만에 첫 시집 내고 활동 본격화

“윤회 바탕으로 강렬한 몸짓 표현”

무용- 손관중 교수(한양대 무용과) “한국현대무용의 카리스마” ‘윤회’로 통칭 강한 무용수’ ‘이미지 춤의 전령사’ 손관중 교수(한양대 무용과·46)를 묘사하는 말이다. 스승 김복희 교수(한양대 무용과)의 작품 ‘요석, 신라의 외출’이 1988년 초연될 때 원효역을 맡은 후 손 교수의 트레이드마크는 짧은 머리가 됐다. 끊임없이 작품에 활용할 불교적인 모티브를 생각하는 그의 춤은 강함, 격렬함으로 표현된다.

“제 작품의 주제는 바로 ‘윤회’입니다. 데뷔작에서부터 97년 서울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은 ‘인간 나무’, 지난해 초 인간의 삶과 죽음을 파고와 생생이라는 윤회의 관점으로 풀어낸 ‘검은 소나타-불타는 칼’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윤회를 표현했습니다.” 윤회에는 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현대춤협회가 2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손 교수는 3월 6~8일 20주년을 맞는 작가 12인전 공연과 현대춤작가인명록 발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예술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는 손관중&가립다댄스컴퍼니도 세 가지 색깔의 강렬한 춤을 보여줄 5월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양대 동문으로 이뤄진 손관중&가립다댄스컴퍼니에 대해 손 교수는 “가립다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의 첫 글자인데 무용계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뜻”이라고 창단의 의미를 설명한다. 가립다댄스컴퍼니는 2005 서울무용제에서 ‘붉은 나비 고백’으로 음악상을 받기도 했다. 손 교수의 대표 연작 시리즈 ‘적멸’은 지난해 5월 ‘2005 광화문댄스페스티벌’에서 ‘적멸-허무’로 선보이는 등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외국 무용수들이 40대에 대부분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과 달리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청년 같은 정열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무대를 장식하는 손관중 교수.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2006년 그의 바쁜 스케줄 만큼이나 새해 벽두부터 무대 위에서의 그의 비상(飛上)이 기다려진다.

글=강지연, 사진=고영배 기자

5월경 세가지 색깔 주제 공연 예정

“경전 모르면 현대 불화 못 그려요”

미술- 구진경 화가 ‘현대적인 불화가’ 구진경 작가(40)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해 불도를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던 구 작가를 12월 20일 작업실에서 만났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불화이기에 타 종교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불교적이구나’ 하는 자연스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화를 그리는 구 작가의 설치물에는 흑백의 묵판화 같은 느낌의 작품도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결과다.

“현대적으로 도상화된 제 불화들은 재가불자들보다 오히려 스님들이 좋아했다”는 구 작가는 그의 작품을 눈여겨봤던 한 스님의 요청으로 올해 경남 밀양에서 한 사람에서 극락전 불화를 현대적으로 꾸밀 계획이다. 구 작가가 벽화를 작업할 곳은 15m에 달하는 토폴 진입로. 이곳에 청동 판을 세우고 안쪽에 조명을 설치해 빛으로 장엄된 아미타 극락도를 재현할 생각이다.

“청동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극락도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구 작가는 불화를 전공하게 되기까지 스승 김대영 작가의 힘이 컸다고 고백한다. “집에 가서 불화 보는 것은 좋아해도 불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던 저에게 불화 그리면 잘 하겠다고 조언해 주셨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불화를 그리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지자 삶의 자세도 바뀌게 됐다. “불화를 그리는 것이 삶의 구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구 작가는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이 있듯 불화 역시 불교를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꾸준한 경전 공부를 하며, 동국대예술인법회에 참석한다.

구진경 작가는 “제 삶의 모든 열정을 불화 도상의 현대적인 변형작업에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글=강지연,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적인 아미타 극락도 벽화 꾸밀 계획

“불교, 창작활동의 매력적인 소재”

음악- 이진구 작곡가(농인선원 지휘자) “불교적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신재한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다보면 불교음악에 대한 창작욕구가 솟아납니다.”

“2005 창작 천불가 공모대회”에서 창작곡 ‘내 마음의 부처’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작곡가 겸 불교합창단 지휘자 이진구(38)씨는 새해의 다부진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삼보사와 농인선원에서 불교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기도 한 이씨는 농인선원과 함께 상반기 중에 발매할 CD같은 작업으로 새해벽두부터 분주하다.

“10여 년 동안 불교음악계에서 활동 하면서 작곡한 찬불가가 대략 50여 편 정도 됩니다. 이번 CD에는 그동안 발표된 대표곡 2~3개 정도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댄스 버전의 찬불대중가요를 새로 작곡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씨는 사실 불교음악보다는 일반 대중과 방송 드라마와 대형 뮤지컬 작곡가로 더 명성이 자자하다. 그동안 이씨는 SBS의 ‘아인시대’를 비롯해 KBS의 ‘전설의 고향’, MBC 다큐멘터리 ‘수탈’ 등 이름난 대만 고개가 끄덕여 지는 유명 프로그램의 음악을 도맡아 왔다.

이런 이씨가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대 대학원에서 95년 정부기 중앙대 음대 교수에게 사사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사제지간의 끈끈한 인연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기 교수가 쓴 불교 창작오페라 ‘아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에서 이씨는 국악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앞으로 불교전통 아가페라 중창단을 만들어 수준 높은 불을 포교에 매진하고 싶다는 이씨는 뮤지컬 음악감독 겸 방송인인 박칼린씨와 함께 ‘에밀레’를 주제로 한 뮤지컬 작품을 올 상반기 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글=김주일, 사진=박재원 기자

찬불가 작업·뮤지컬 준비 등으로 분주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나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엔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어 지랄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차산삼(長藏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린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왔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월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전신이 떨려졌다.
- 백혈병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왔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에게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열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만 한정)

1Box(60포) 15만원 2Box(120포) 25만원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 www.mansam.net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김**에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완성된 인격과 덕망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체계적인 수행법 1:1 개인면담
불교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장 소 : 보명선원 (중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시 간 : 오후 2:00 ~ 4:00, 저녁 7:00 ~ 9:00(월~토)
수강료 : 자율보시
준비물 : 고무줄바지 (츄리닝)

매주 토요일 오후 4 ~ 6시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서대원 박사 불전한문 상식속도강의

대학로 1호선 5번출구
중로4가 동서약국 서울중요노역
정계전 보명선원 5층

보명선원 TEL 02)2273-8484 C·P 011-785-8813

2006년 신개발 **후불제 실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 이 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내면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3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은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풍류있는 디자인(용추, 佛手 고리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영철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류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끼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 우발적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서화당인생필수V2.2 (동양철학)
네오헬스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V2.0 (작명)

▶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정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공해음, 민세력계, 사주사건기, 방랑특기, 출력가능까지 (그간 3,000여명 판매실적) * 특허받은 '사주전하', LG산전 남품실적'

사상학 : 나의 체질진단, 약성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생활제품

인장성명학 : 사주팔자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정 등 표기설명, 성명필수(한글, 한자), 적명(행황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명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팔자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에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도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농협 453050-55-002174) (사)한국체질의학연구원

특가행사 :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원 | 감수 : 한국중앙청학원협회 중앙회장 최귀봉 대한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영
☎ 050-2266-3366 / H · P 010-3366-3366